

“시중심도시·군공항 이전·인구감소 대응”

광주 총선 후보자 공약 분석

원도심 AI밸리·바이어 특구 조성 일자리 창출...청년인재 유출 방지 공공의료시설 확충·교육여건 개선

4·10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앞다퉀 지역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산업 구축과 군공항 이전, 인구 소멸 대응 등 광주 주요 현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 너도나도 '인공지능 중심도시'

여야 정당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온 광주 공약은 단연 '인공지능(AI)'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공동 공약 중 하나로 광주 전체를 실증 특례지구로 지정해 'X-MAS(Mobility·Artificial Intelligence·Semiconductor)' 실증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을의 안도걸 민주당 후보는 슬럼화되고 있는 광주 원도심에 AI 밸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순대에 AI 분야 기업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캠퍼스 중심 산단을 조성하고 광주 소재 대학교와 연계해 '바이오산업 특구'로 지정해 구도심 재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같은 당 광산울의 민형배 후보는 북구와 광산구 경계에 자리 잡은 첨단3지구 일대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AI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광주형 테크노밸리·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광산울 안태욱 후보는 AI 중심 첨단과학기술 융복합산업 투자촉진지구 육성과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산울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역시 제1호 공약으로 "광주를 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와 'AI산업육성법안' 발의 등을 약속했다.

● 인구감소 위기 극복 '한 목소리'

광주 총선 후보들은 일제히 최대 지역현안 중 하나인 '인구감소' 대응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국가가 구도심 매물을 매입해 공공 주택을 조성하는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후보별로 동남갑 정진욱 후보는 남구 대촌 에너지밸리

와 도시 첨단산단에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 청년 인재 유출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광산을 박근혜 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단지 설립을, 북구갑 정준호 후보는 도심형 공동캠퍼스 조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의료 기반의 전세대 의료서비스 보장'을 내세웠다. 광주시 의료원 설립, 소아 전문 진료센터 구축 등 대규모 공공 의료시설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새로운미래 북구를 박병석 후보는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립 국제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진보당 김미화 동남을 후보는 보육교사 인력 활용과 24시간 어린이공공병원 확대를 통해 아이 돌봄과 소아 진료 공백 제로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같은 당 북구를 윤민호 후보도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구울의 강은미 정의당 후보는 3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 상시 지속 업무 직군 정규직화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동남을 김성환 후보는 구도심의 오래된 학교와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특성화를 지원, 기피 학교 문제를 해소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군 공항 이전·부지 활용 약속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던 '군 공항 이전'도 빠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 이전을 약속했다. 후보별로 광산갑 김정현 후보는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서구갑의 하현식 후보는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는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피해 보상금도 1인당 월 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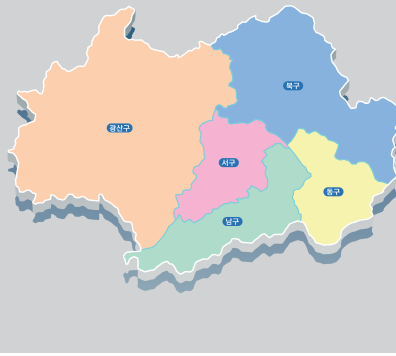
서구갑의 강승철 진보당 후보 역시 군 공항 소음피해 기준과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당 광산갑 정희성·서구갑 강승철 후보도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을 확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로운미래 광산을 이낙연 후보도 군공항 이전의 정부 지원 방안 확대 등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 총선 주요 공약

- 민주당** 인공지능 실증도시 조성,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
- 국민의힘** 인공지능 융복합촉진지구 육성·광주 의료원 설립
- 녹색정의당**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상시 직군 정규직화
- 새로운미래** 인공지능산업육성법안 마련·공립 국제고 신설
- 진보당** 어린이공공병원 확대, 전투기 소음 보상 확대



광주 서구 화정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제22대

“포퓰리즘 공약 아닌,

유권자들이 원하는 국회의원

상대후보 존중 않는 비방 '눈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 리더십으로 경제난 최우선 극복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유권자들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당장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휴일 유세 현장에서 만난 이학권(65)씨는 “남의 말을 귀담아들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단순한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면 틀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거대 양당 또한 서로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헐뜯기만 하니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을 떠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 김복희(73·여)씨도 “유세에서 사용되는 홍보 노래마저도 비방이 섞여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씨는 “집이 사거리 근처라 선거철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짜증이 나는데, 가사마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어서 피로감만 쌓인다”며 “광주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비방 정치를 하지 않는 의원이 당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성주(53)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을 살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정 센터장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 22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 열린 '2024 총선 후보자 광주 장애인정책 선언식'에 참여해 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장애여성지원법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